

서남권 해상풍력 이익공유 모델로

고창·부안 해역 일원 2.4GW 규모

2030년까지 대규모 단지 조성

고창군, 지역사회 혜택 공유 추진

고창군이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주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모델로 만든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단순한 발전 설비 확충을 넘어, 지역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고창군은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발전사업자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혜택을 공유하는 구조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자(서남권원드파워(주)·컨소시엄)가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해당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고창·부안 해역 일원에 2.4GW 규모(원전 2기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서남해는 국내 해상풍력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고창·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2.4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돼 왔다.

특히 60MW 규모의 실증단지는 2020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기술적·환경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군은 이러한 대규모 에너지 개발을 지역의 부담



고창군이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모델로 만든다.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전경.

〈고창군 제공〉

이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해상풍력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 보전, 어업 활동과의 공존, 지역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지난해 말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의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

군은 해상풍력 개발을 일방적인 외부 사업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상생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조례 제정은 향후 주민참여 방식 구체화, 지역기금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라며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임플란트' 추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미뤄온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기존의 의치(틀니) 지원 사업을 임플란트까지 확대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항목을 넓혀 1인당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단, 의치와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동시 충북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층 중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자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다.

과거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7년 이내에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와 겸진 결과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지소(진료소)에 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1차로 전신 건강·구강 상태를 검진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되



정읍시가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기존의 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임플란트까지 확대한다. 정읍시 보건소의 어르신 치과 치료 모습.

〈정읍시 제공〉

면 관해 협력 치과의원과 연계해 전문적인 시술을 받게 된다.

정읍시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 건강은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의 물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

요한 요소"라며 "어르신들이 저하된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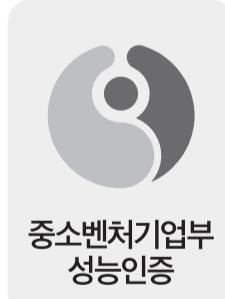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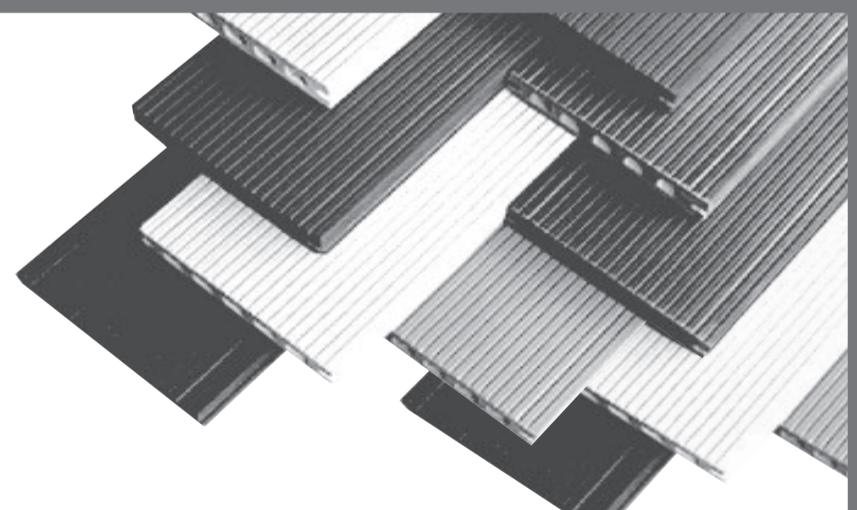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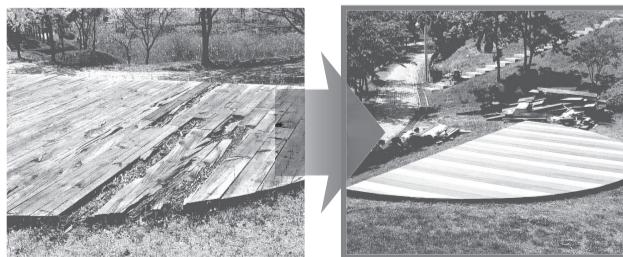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휴먼이엔티주식회사
프로토어벤처 ISO9001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

남원 '옻칠 목공예대전' 대통령상 격상

위상 강화...상금도 증액

남원시가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의 위상을 드높이 위해 훈격을 대통령상으로 높이고 상금도 늘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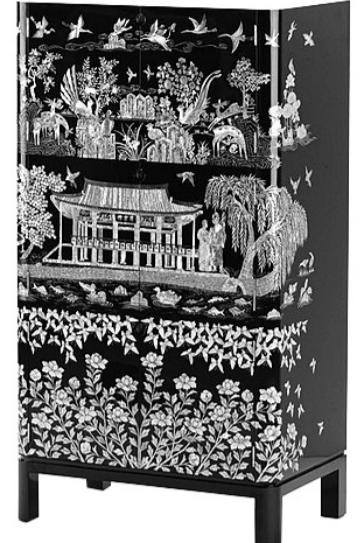
옻칠 목공예대전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전북도, 남원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2018년부터 국무총리상을 최고 훈격으로 시상해 온 국내 옻칠 목공예 분야 대표 공모전이다.

최고 훈격을 기준 국무총리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상 상금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해 국내 공예 분야 최고 수준의 상금을 마련했다.

신진 작가 발굴과 육성도 대폭 강화한다. 시상 규모를 기존 37건에서 47건으로 10건 늘려 젊은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옻칠 목공에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상금 규모는 총 1억4000만원이다.

출품 접수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로,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출품 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강당 또는 서울 남원장학숙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은 한국 옻칠 목공에 전



지난해 공모전 대상 작품.

통문화를 계승해 지역 문화예술로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도시"라며 "새롭게 단장한 대전을 통해 전통 장인과 신진 작가들이 함께 조망받고, 옻칠 목공예가 현대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청년 창업가 3년간 성장 지원

청년기업 인증제 다음 달까지 모집...금융·입주·평가 가점 등 혜택

정읍시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청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자본력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기 청년 기업에 공신력을 부여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정읍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를 전역 도입해 다음 달 2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이며, 상시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금융·입주·평가 가점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돼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기업 인증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자본력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기 청년 기업에 공신력을 부여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청년 사업가의 창업·성장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지역 산업 전반에 활동력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기업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꿈을 펼쳐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반값 농기계 임대 연말까지

농업인 1인 최대 3일간 대여...농가 경영난 해소

고창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고창군은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역 농업인들은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모든 농기계를 반값에 빌릴 수 있다.

임대 대상자는 고창군 내에 등록지나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다. 대여는 한 사람당 농기계 한 대

씩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단, 임대 예약자가 없는 경우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임대 농기계 사용률을 높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감면 연장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농기계 사용 전 안전 점검과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사고 없이 안전한 영농 활동에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고청=김형조 기자 khj@